
2020년 제2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6. 5. ~ 6. 1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6·25 70주년 특별기획 '오스트리아에서 온 케이디의 DMZ'		
방송일자	2020. 6. 5.	시청률	0.008

【총 평】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 속에 담긴 DMZ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스트리아인 케이디의 시선으로 6·25 70주년 특별기획 '오스트리아에서 온 케이디의 DMZ'을 방송하였다.

한국 생활 5년째인 오스트리아 출신 케이디가 바라본 DMZ는 어떤 곳인지, 자연이 주는 DMZ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또, DMZ와 가까운 강원도 철원 전통시장 풍경, 백마고지와 주변 이야기, 월정리역에 얹힌 역사, 전쟁의 아픔을 극복한 철원평야 그리고 땅의 위대함, 제2땅굴, 남북합작 다리 승일교 의미와 예술적 가치, 암정교, 현무암 용암절벽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한탄강 140km 풍경, 고석정 가치, 삼부연 폭포 유래, 미래의 세계유산 DMZ 등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DMZ의 빼어난 영상미와 함께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와 흔적을 간직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조명한 점이 신선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온 케이디의 고국도 독일과의 전쟁역사가 있기에 남북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이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케이디의 DMZ 방문을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리와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DMZ의 아름다운 풍광과 전쟁기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케이디의 DMZ'는 철원의 명소인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최북단의 역,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백마고지역,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월정리역, 전쟁의 흔적인 북한의 노동당사, 제2땅굴을 방문했다. 또, 1958년 완공한 남북 합작다리 승일교, 남과 북을 흐르는 140Km의 한탄강과 고석정, 직탕폭포의 아름다움, 삼부연 폭포 4계의 아름다움이 전해졌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DMZ의 풍광은 반가울 만큼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였고 전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노동당사 외벽 및 총탄흔적, 제2땅굴은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실감나게 하였다. 남북 합작 다리 승일교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사연으로 다가왔고 한탄강은 남과 북을 이어 흐르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선사하였다.

철원평야부터 본격적으로 DMZ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다. 노동당사를 방문해서 전쟁 당시를 회상했고, 자연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DMZ 풍경이 전해졌다. 특히, 소이산에서 내려다본 풍경이나 철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등장할 때는 분단된 국토와 오버랩을 잘 시켜서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게도 해주었다.

승일교와 암정교, 한탄강, 고석정 등 여러 조형물을 소개했는데 전쟁과 연결시켜 조금 더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마무리부분에서는 삼부연 폭포를 소개하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언급이 나와 방송이 제작된 취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만들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6. 5.	시청률	0.046

【총 평】

북한의 영재교육 실상과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북한의 의료현실을 깊이있게 보여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북한 영재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젊은이들의 우수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도 북한의 평화, 비핵화, 남북간 소통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돼 적절한 대북 제언 메시지를 부각시킨 점도 탁월했다. 또, 북한의 속독 천재, 암기왕, 조기교육 열풍 등을 소개하고 북한을 탈출한 수학 영재가 현재 서울대 수학과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고, 왜 탈북 배경과 북한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한 대목이 주목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해커를 양성하는 북한 IT교육의 빛나간 충격적 현장을 고발한 점도 새로운 시도로 시선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난으로 의료수준 유지가 어려운데도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의료체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도와 실상을 낱낱이 짚어본 점도 의미가 컸다. 북한의 암기왕을 소개하면서 진행자와 패널이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해 맞추는 퀴즈 게임을 한 구성도 예능성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 <단박독> 코로나19 극복하고 북한을 이끌어 나갈 특별한 북한 영재교육

북한의 영재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두뇌격술이란 영재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두뇌격술이란 두뇌로 겨루는 분야로 바둑, 주산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북한의 조기교육 열풍 역시 강하게 불고 있는데, 명문 유치원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인적 네트워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3년 전 홍콩 수학올림피아드가 끝난 후 한 북한학생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여 현재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북한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제1외국어 중 하나로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에서 집중하고 있는 영재 교육이 IT 분야다. 북한 내 컴퓨터 보급률은 낮지만 주요 학교에는 보급되어 있다. 인터넷 연결 대신 인트라넷을 활용한다.

■ <북마크 TV>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북한이 강조하는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고 강조하는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의료시스템을 연일 홍보하고 있다. 북한 의료체계 중 하나가 의사담당구역제로 의사가 구역별 왕진을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사항】

03:00 좌상단 '북한한 영재발굴단!'은 '북한판'의 오키로 보여짐

06:13 여러분의 북마크라는 점에서 '체제'는 '체제'를 잘못 표기한 것 같음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6. 6.	시청률	0.008

【총 평】

지리산 산골 내,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작은 산들과 청명한 소리를 담은 '지리산 귀촌별곡, 경남 산청'을 방송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벌꿀 농사를 짓는 부부 가족, 산청군 생비랑면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젊은 농사꾼, 산청면 근서면의 대장장이를 만나 지리산자락의 사람 사는 이야기인 귀촌별곡과 독특한 풍경 소리를 담았다. 시작부분에서 지리산의 전경을 담아내면서 감성적으로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지리산의 산중 풍경과 계곡의 흐르는 물, 야생화 등이 보기 좋게 잘 연출됐다.

【구성 및 내용】

첩첩산중 지리산 줄기 산청면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풍경을 정겹게 그려냈다. 지리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귀농 4년차 부부 이야기, 부부의 새벽 벌꿀채집 소리를 비롯해 태풍바람에 밀려오는 전차 소리 같은 벌 소리, 텃밭 가꾸는 소리를 담아냈다. 또, 산청군 생비랑면에서 상황버섯 사랑을 보여준 농장대표 이야기와 버섯을 키우는 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와 인간이 들려주는 하모니카 소리를 전달했다.

현대 시대에 만나기 힘든 산청군 근서면 대장간에서의 쇠달구는 소리와 쇠 치는 소리, 63년을 이어오는 대장간지기 2대 대장장이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와 대장간 소리, 산길 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버스카페 사장님, 무작정 산이 좋아 찾아 온 버스카페 사연 등 경남 산청의 소리를 풍족하게 담아냈다.

산청으로 귀촌하여 양봉과 버섯농사를 짓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이 부부와 함께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귀촌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누었다. 상황버섯이라는 작물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과 막내처남의 건강을 위해서 버섯재배를 시작했다는 따뜻한 사연도 함께 소개가 되어 더욱 기억에 남았다. 또,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은 3형제 중 장남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주문제작을 받아 만들어지는 각종 쇠기구들의 제작 과정을 잘 담아냈다. 흔하게 볼 수 없는 대장간의 풍경과 쇠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신기했다. 이 밖에 산중에서 버스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공을 만나 더덕 쥬스를 나누면서 귀촌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산청의 새벽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일품이었다. 소리채집가가 직접 말로써 풀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언급해서 몰입감을 높였는데 실제로 산중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실감나게 잘 담겼다. 양봉농가를 소개할 때는 벌소리도 인상적 이었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벌소리가 가까워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으로 변화되어 신기했다. 양봉농가에서 주인공 아버지가 막간을 이용해 하모니카 연주도 들려주어 정취를 더했다. 대장간에서는 쇠를 내려치는 소리도 잘 잡아냈는데 특유의 리듬감이 있어 소음 처럼 느껴지지 않고 듣기 좋았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6. 6.	시청률	0.002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제26회는 앞서가는 행정 수범사례가 소개되어 지자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주민 만족도와 지역발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기획이 탁월했다. 또한, 위민행정의 본보기로 다른 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한 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는 구도심 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성공사례로 지자체마다 겪는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여서 주목도를 높였다.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은 코로나 사태로 배달용 아이스팩 쓰레기가 늘어나는 환경문제를 구청과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으로 해결한 서울시 강동구 사례도 위민행정의 본보기였다.

【구성 및 내용】

대전 대덕구 대화동 어린이 공원의 경우, 폐허가 되다시피 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디어를 보태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공간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취재였다고 생각한다. 한 곳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켜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어린이공원은 몇 년 전만해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나 공단 이전 이후 인구가 줄어들며 우범지역으로 변모했다. 공원주변으로는 폐가가 늘어나며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브랜드를 도입한 것이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들이 오려면 가족들이 함께 와야 하는데 가족들이 정작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이에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이 밖에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로 24시간 방범 CCTV, 안심벨 설치, 공원 내 흡연 차단을 위해 금연벨 운영 등을 도입했다.

서울 강동구의 아이스팩 수거시스템 구축을 다룬 취재는 개선된 결과를 중심으로 리포트하지 않고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그려내 공감의 폭을 키웠다. 특히 행정기관의 문제 인식과 민간의 협력과 참여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뽑아냈는데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한다. 강동구청에서는 민관기업 협약 체결을 통해 아이스팩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주민센터 등 18곳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는 지역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 아이스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거한 아이스팩을 신선식품 업체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다.

특히, 정책 시행으로 나타난 실제 효과를 그래픽으로 제시한 점도 수용자의 확신감을 높이는 요소로 주효했다. 구도심 범죄예방...’도심으로 돌아온 등대’에서는 대화 어린이공원의 범죄율78% 감소, 범죄예방효과 80%,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 효과로 수거량 7만개, 쓰레기 감소량 35톤 등 정책효과를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DMZ 공존 1부, 지뢰! 전쟁이 뿌리고 평화가 거들 씨앗		
방송일자	2020. 6. 7.	시청률	0.120

【총 평】

KTV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마련한 UHD 다큐멘터리 'DMZ 공존'은 한국전쟁 70주년 기획답게 기대이상이었고, 다른 전쟁관련 다큐 프로그램을 압도할 수 있는 수작이다. 3부작으로 제작된 'DMZ 공존'은 제1부 '지뢰'가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상처로 문제제기를, 제2부 '편지'는 소통, 공유, 힐링의 메시지를, 제3부 '길'에서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솔루션 과제를 제시하는 짜임새있는 구성으로 제작돼 소구력을 높인 점이 강점이다.

특히, 육군 53사단의 폭발물제거반이 부산 중리산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현장을 소개했는데 누구도 부산에 지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란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준 현장이었다. 지뢰 피해자에 대한 취재도 아픈 기억과 상처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모색을 위해 아픈 상처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충일과 6.25라는 시의적 흐름에 적절한 기획이었고, 전쟁과 평화라는 두 단어를 화두로 던져놓고 지뢰를 평화와 공존을 위해 제거해야할 하나의 상징물로 설정한 구성은 의도했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성 및 내용】

분단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서 시작해서 에필로그에 다시 백령도로 돌아와 '어민과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효과적인 기승전결이었다.

DMZ 공존 1부 '지뢰, 전쟁이 뿌리고 평화가 거들 씨앗'에서는 최전방에서부터 남쪽 해안 도시 부산까지 매설된 지뢰의 실상과 그로 인해 아직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는 피해자 사례, 지뢰 제거에 나선 젊은 군장병들의 모습이 밀도있게 그려져 몰입감을 이끌었다. 지뢰 피해의 아픔을 자립과 장애인 체육대회 우승으로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배우 이정진을 프레젠티어로 내세워 전국 지뢰관련 상징적 장소를 탐방하며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지뢰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탐사보도 다큐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주목도와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물범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 해법찾기 시사점을 제시한 마루리가 깊은 여운을 남겼다.

전쟁이 뿌린 지뢰, 이제는 평화가 거들 씨앗으로 치환해보자는 메시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KTV UHD 다큐멘터리 'DMZ 공존' 3부작은 오는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MIPCOM(국제 영상 콘텐츠 박람회)에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6. 7.	시청률	0.192

【총 평】

사계절 내내 김·소금·새우젓·시금치를 생산하는 전남 비금도 여인의 귀농 인생, '굳세어라 비금도 함초여인'을 소개하였다. 4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 온 비금도 함초여인은 전남 신안군의 풍요로운 자원을 발판삼아 새처럼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는 함초소금 생산자이다.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원은 그녀를 어머니 품처럼 받아들였고, 객지에서 생활했던 어려움이 자산이 된 귀농인의 삶을 소개하였다.

전남 신안군은 故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자 바둑계의 신화인 이세돌의 고향, 신안 앞바다 보물 등 인물이나 문화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늘이 내려준 함초, 그리고 아름다운 비금도의 밤풍경 등은 빼어난 영상미를 보여주었고, 생명체를 잘 담은 연출이었다. 넉넉함과 여유, 공생농법으로 더불어 사는 비금도 농부들, 제2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의 귀농이야기를 프로그램에 잘 담아냈다. 특히, 모든 생명을 먹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빚어낸 자연의 혜택, 자연과의 공생이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소개함으로써 경이로움을 안겨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섬의 형상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지은 비금도, 아름다운 비금도의 자연 풍경이 전체 화면으로 펼쳐져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주인공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자제되었고, 함초의 원리와 효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주인공이 화재로 시금치 농사에 실패한 경험담을 소개했고,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함초 농사를 하게 해주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함초를 나물로 무치기도 하고 각종 생선요리에 첨가하여 비린내를 잡아준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았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함초를 제조하고 갯벌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식재료로 요리를 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소개됐다. 함초는 소금이나 분말 이외에 재료 자체를 보기도 힘들고 그것을 어떻게 음식으로 섭취하는지도 생소한데 이러한 소소한 부분이 많은 정보로 다가왔다. 공생 농법 전문가의 도움으로 색다르게 함초를 재배하는 과정이 펼쳐졌고, 공생농법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는데, 식물과 식물끼리, 식물과 동물끼리, 식물과 미생물까지 서로 밀접하게 공생한다는 이치를 전달했다.

특히, 시작부분에서는 이곳의 해수욕장과 선왕산과 그림산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며 비금도 전체의 절경이 소개되어 감동을 주었다. 또,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염전의 모습이 절경이었는데, 염전을 배경으로 해서 낮과 밤의 다른 분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염전에서 일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연출이 잘 되었다. 이와 함께, 갯벌의 풍경도 아주 감각적으로 연출이 잘 되었는데 함초와 미꾸라지가 함께 나오는 장면도 세세하게 잘 살렸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6. 9.	시청률	0.000

【총 평】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걸맞는 '호국영웅 고 김진구 하사...67년 만에 가족 품으로'가 돋보였고, 반려동물 똑똑한 입양 도와드립니다, '우주와 기상' 즐겨요...과학 체험공간 등장, 빛고을 광주의 근대역사 자료 눈길 끌어 등 다양한 볼거리 중심의 생활정보가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호국영웅 고 김진구하사...67년 만에 가족품으로'는 6.25한국전쟁 당시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후 유해가 발굴돼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웠다. 특히, 시료채취와 유전자 감식으로 호국영웅과 가족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과정이 방송돼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정책알림이 역할을 수행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걸맞는 생활정보 제공과 함께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개선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고 기상과 학과 향토역사문화에 대한 흡인력을 높인 구성도 신선했다.

【구성 및 내용】

■ 호국영웅 고 김진구 하사...67년 만에 가족 품으로

지난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중 김진구 하사의 유해가 67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에 귀환행사가 대구 충혼탑에서 열렸다. 특히 그동안 전장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려온 90대 아내의 통한의 슬픔이 인터뷰를 통해 절절히 전해진 점이 인상적이었다.

■ 반려동물 똑똑한 입양 도와드립니다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없이 무작정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더불어 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입양가족들의 입양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입양가족들의 준비와 동물과의 충분한 교감을 위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 '우주와 기상' 즐겨요...과학 체험공간 등장

경남 밀양의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이 새로 조성되어 어른과 아이를 위한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스크린으로 실제 밤하늘을 재현하기도 하며 낮에 금성을 보거나 태양의 흑점을 관찰할 수도 있게 마련되었다.

■ 빛고을 광주의 근대역사 자료 눈길 끌어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원래 민속박물관이었지만 지난 3년간 역사콘텐츠를 도입, 조성하여 광주의 역사자료도 상당히 구비하였다. 이밖에 남도의 다양한 의식주, 민요, 5.18 기념전시 등도 이뤄지고 있다.

■ 생활속 거리두기(환경소독)

국민기자가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소독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손씻기와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소독 전 사전준수 수칙과 더불어 소독액 만들기 등을 안내하였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6. 9.	시청률	0.015

【총 평】

<톡톡 사이다경제> 제268회는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세계 리더 국가 발돋움 과제는?”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5월 3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인도, 호주와 러시아를 G7 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톡톡 사이다경제에서는 화제가 된 G7+4개국 관련한 경제 이슈를 우리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 세계 12위 국가였던 한국이 G7에 초청된 배경과 의미를 냉정함과 객관적인 시각을 갖춰 설명해주어 설득력과 공감도를 높였다.

특히, 한국의 K-방역은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였고 세계의 많은 국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물론 추후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제 등을 세계 공공재로 활용할 뜻을 밝힌 우리 정부의 위상이 대단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세계경제의 방향과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G7에서 트럼프의 4개국 참여 확대를 시키는 의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를 집중 보도하였다. 특히, 4개국중 한국은 K-방역의 성공적 효과로 국제사회의 신뢰가 상승하여 초대받게 되었다. 트럼프 개인의 재선에 있어 성공적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G7 개최에 4개국을 추가해 개최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입지까지 함께 다루면서 그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언급하기도 해 아주 설득력이 높았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간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다루어져 이 대목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샀다.

특히, 중국도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일본의 반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따져보면서 향후 일본이 우리나라의 G7 초청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예상해봤던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 언론의 반응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조금 더 설명에 힘을 실었다. 한국의 참여 초청에 대해 일본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일본은 G7의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일국이라는 자부심도 있는데, 한국을 G7확대회의 참여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G7문제를 살펴보고 우리가 얻는 실익에 대해 알아보았다. G20과 G7, G11의 차이가 얼마나 천지차이인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강조했고, 브라질의 참여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 설득력이 높았다.

<S&뉴스>에서는 코로나속 해수욕장 개장과 덴탈마스크 공급,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 제도에 관해 다루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임대료의 50%를 깎아주고 2명이상 낳으면 임대료가 무료인 임대주택의 보급을 시도한 것이다.